

YG의 미래, 결국 빅뱅에 달렸다?

블랙핑크 국내의 주가 부양 불구
음원 부진·YG 악재에 실적 부진
2분기 영업이익 작년대비 84% ↓
승리 빠진 빅뱅, 내년 활동 관련



같은 의혹과 구설로 2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그룹 빅뱅(탑, 대성, 태양, 지드래곤·왼쪽부터)이 새로운 힘이 될지 주목된다. 사진제공 |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프로듀서 양현석과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등이 잇따라 같은 의혹과 논란에 휘말리면서 YG엔터테인먼트(YG)의 2분기 실적이 악화했다. 이에 각 증권사들은 목표주가를 하향조정했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현재 국내외에서 주가를 올리는 상황이지만 YG의 '주력부대'인 그룹 빅뱅의 활동 여부와 성과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하나금융투자와 KTB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13일 YG의 목표주가를 대부분 내려 잡았다. 하나금융투자는 4만3000원에서 2만8000원으로, KTB투자증권은 3만8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YG의 2분기 실적이 부진한 탓이다.

앞서 12일 YG는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81억 원과 2억 원이라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25%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84.4%가 줄

어 들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40억 원에 크게 밑도는 것이기도 하다.

글로벌 투어 등 걸그룹 블랙핑크가 얻은 국내외 높은 인기와 위너의 컴백이라는 성과 속에서도 YG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하나금융투자 이기훈 연구원은 13일 "음원이 89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나 줄어드는 등 예상보다 크게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세무조사 대응에 따른 지급수수료 증가(10억 원 이상), 승리 콘서트 위약금" 등 비용과 "텐센트 뮤직의 주가 하락으로 70억 원의 손실"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3월 '클럽 비닝센' 논란으로부터 불거진 승리와 양현석의 외국인 투자자 성절대 및 해외 원정도박 등의 의혹, 그룹 아이콘의 리더 비아이의 마약 관련 의혹 등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이 결국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최대주주 및 빅뱅 멤버들과 관련한 이슈가 진행 중이며, 아이콘의 리더 탈퇴 및 트레저13 데뷔 지연 등 본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YG의 대표 가수인 그룹 빅뱅의 향후 활약에 가요계 안팎의 시선이 쏠린다. 빅뱅의 멤버 가운데 같은 의혹과 논란으로 탈퇴한 승리를 빼고 탑이 7월 초 제대했고 지드래곤과 대성, 태양은 현재 군 복무 중이다. 지드래곤은 10월, 대성과 태양은 11월 제대한다.

문제는 태양을 제외한 다른 멤버들이 잇단 의혹과 논란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건물 관련 불법영업(대성), 입대 전 대마초 관련 혐의와 휴가 과다 사용(탑), 군 복무 특혜(지드래곤) 등 같은 논란과 구설이 군 복무 중인 이들의 이미지를 타격했다. 가요계 한 관계자는 "모든 멤버가 제대한 뒤 내년 초 '완전체'로서 그룹 활동을 모색할 수 있을지는 결국 YG를 둘러싼 같은 의혹의 해소 여부와 여론의 추이에 달렸다.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차량 털이 당한 A로드 보석 등 6억 원대 피해



알렉스 로드리게스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였던 알렉스 로드리게스(44)가 차량털이범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언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을 비롯한 현지 언론들은 13일(한국시간) "로드리가스가 도난 피해를 당했다. 차량 내부에 있었던 보석, 전자장비 등 피해 금액은 약 50만 달러(6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로드리게스는 12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맞대결이 열린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를 찾았다. 경기가 종료된 후 식사를 하는 상황에서 차량털이를 당했고, 도둑은 보석과 카메라 등을 훔쳐간 것으로 전해졌다. 로드리게스 신변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현지 언론은 "경찰은 방침에 따라 피해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관계자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가 로드리게스라는 사실이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

내가 왜 떴게?

이제 다시 먹어줄 시간



벤즈

●벤즈, 벌금 500만원 : '떡방' 크리에이터 벤즈(29)가 벌금 500만원을 맞았다.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 때문. 벤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 저에 대해 실망하신 것들을 모두 다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실수는 누구나 저지르는 법. 어서 딛고 일어나 푸짐한 떡방을 다시 보여주시길. 그나저나 한 끼 밥값이 날아가서 아예요.

마음고생은 최고의 다이어트?



신지

●신지, 해명 : "마음고생을 조금 했어요". 가수 신지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건강 약화설을 일축했다. 코요태 활동과 솔로 준비를 병행하면서 부담감이 컸는지 마음고생을 하는 바람에 살이 빠졌다는 것.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 염려 마시라"고 팬들을 다독였다. 그랬군요. 저는 부장님한테 한 소리 듣고 스트레스 받아 공기밥 추가해서 폭풍 퍼먹는 중.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유해진·류준열 vs 조정석·임윤아, 광복절 흥행 총력전

(봉오동 전투)

(엑시트)

'봉오동...' 광복절 분위기에 '떡' 유해진·류준열 서울서 무대인사
'엑시트' 700만 관객 '손익분기점' 조정석·임윤아는 '뽕큐 쇼케이스'



봉오동 전투

엑시트

배우 유해진과 류준열, 조정석과 임윤아가 폭염을 딛고 흥행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현재 박스오피스 흥행 1, 2위를 다투는 유해진·류준열의 '봉오동 전투'(감독 원신연·제작 빅스톤피쳐즈)와 조정석·임윤아의 '엑시트'(감독 이상근·제작 외유내강)가 광복절이 맞물린 주말을 앞두고 14일부터 총공세를 벌인다. 각각 개봉 2주, 3주째에 접어든 두 영화는 13일 현재 250만,

600만 명을 동원한 상태. 입소문 확대와 인지도 상승도 이어지고 있어 추가 관객 동원을 위해 무대에 나선다.

유해진과 류준열은 14일 오후 서울지역 극장에서 무대 인사를 진행한다. 서울 광

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는 팬 이벤트도 따로 마련한다. 동시에 류준열은 평소 SNS를 통해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는 방식을 활용해 영화를 적극 알리고 있다.

훗카이도 메이저컵 연장전 우승... JLPGA 투어 진출 후 첫 번째 우승 차지한 배선우 전화인터뷰

"준우승 3번만에 우승...막혔던 뭔가가 뺨 뚫린 기분"

"10년전 전미정 선배 우승때 꿈 생겨 동경하던 무대서 챔피언 꿈만같아 많은 동료들의 축하 전화·메시지도 가을엔 JLPGA투어 메이저 퀸 도전"



배선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배선우(25·삼천리)의 목소리는 천진난만한 아이마냥 들렸다. 어린 시절 막연히 동경했던 무대에서 정상을 밟았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다.

올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진출 후 첫 번째 우승을 차지한 배선우는 13일 스포츠동아와 전화통화에서 "막혀 있던 무언가가 뺨 뚫린 기분이다. 올 시즌 준우승만 3번을 했는데 마침내 우승을 했다. 특히 연장승부에서 이겨 기쁨이 두 배가 됐다"고 밝게 웃었다.

배선우를 소녀처럼 미소 짓게 했다.

배선우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09년 전미정(37) 선배가 메이저 초콜릿컵(당시 대회명)에서 우승하시는 장면을 TV로 지켜봤다. 부상으로 주최사 과자를 잔뜩 받는 모습이 어찌나 부러웠던지 모른다"고 돌아본 뒤 "그날 이후 JLPGA 투어 진출을 목표로 삼게 됐다. 메이저컵 역시 언젠가 꼭 한 번 우승해야겠다는 마음도 생겼다"고 말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통산 4승을 거둔 배선우는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 토너먼트를 거쳐 열도로 향했다. 국내에서 안정된 삶이 보장돼 있었지만, 어릴 적 꿈을 간직한 채 새로운 도전을 택했다. 이러한 배경을 잘 아는 동료들은 배선우의 첫 우승 소식이 알려지기 무섭게 뜨거운 축하를 보내왔다. 배선우는 "11일에는 KLPGA 투어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경기가 모두 있었다. 그런데도 고진영과 이정은 6, 지은희, 김지현, 박소연 등 정말 많은 동료들이 문자와 전화로 축하를 건넰다. 연락을 받으면서 '내가 인생은 헛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수줍게 말했다. 이어 "김아름은 '언니, 빨리 한국으로 와서 우승 턱을 내라'며 재촉을 하더라. 원래 이번 가을에는 KLPGA 투어 출전 계획이 없었는데 감사를 전하려 국내를 잠시 둘러야할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귀중한 목표를 달성한 배선우에게 이제 메이저 우승이라는 새 과제가 주어졌다. JLPGA 투어는 9월과 10월, 11월 한 차례씩 메이저대회를 진행한다.

배선우는 "첫 우승으로 드디어 큰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다. 앞으로 메이저대회가 연달아 열리는데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JLPGA 투어의 메이저 퀸이 되고 싶다. 이번 가을 시동 한 번 제대로 걸어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